

# 창업자, 대기업과 소통 편해진다 '스타트업 파크' 1개소 추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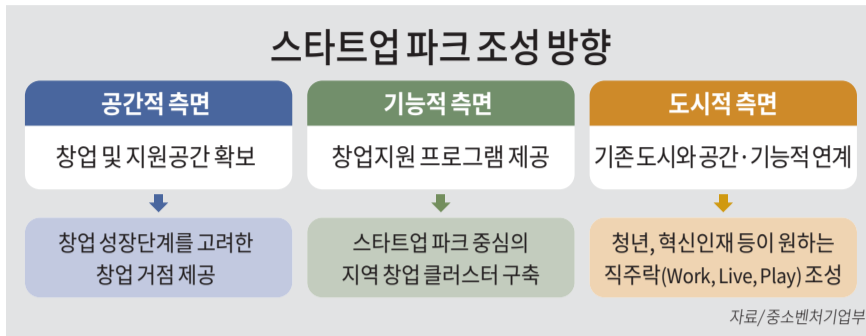
중기부, 지자체 신성장동력 공간 '지역창업생태계 기반' 정책 확대 평가 거쳐 5월 중 선정 지자체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지원기관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지역에 1개소 추가 조성한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의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로, 지난 2019년 이후 총 4개의 스타트업 파크를 열고 현재 조성을 하고 있다.

올해 조성하는 스타트업 파크는 중기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바와 같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구성'에서 '지역창업생태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미래 산업과 연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지역 성장 여건에 맞춰 도심형과 산업생태계형으로 구분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향식으로 계획을



주도한다.

또한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도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 상업·문화·주거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나가도록 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 청년과 혁신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 마중물 뿐만 아니라,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서, 중기부·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 지속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광역 지자체로 창업기획자,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 지자체에 대해선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5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이후에는 건축비로 121억원을 지원하며,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일대일 매칭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오는 20일부터 4월 16일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에 김동섭·김재중 대표 (효동기계공업) (라피치)

중기중앙회·중기부, 1분기 2명 선정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김동섭 효동기계공업 대표와 김재중 라피치 대표를 19일 선정했다.

효동기계공업은 금속성형기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김동섭 대표는 1983년 설립 후 기술개발에 매진해 효동기계공업을 기계산업계의 기술 발전을 선도해나가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다.

효동기계공업은 연구개발의 결과로 2018년 세계 최초로 2200t 초대형 단조 기계인 포머 개발, 2019년 국내 최초 열간포머 개발에 이어 최근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을 위한 링크포머 개발을 포함해 국내특허 26건, 해외특허 2건을 취득했다. 일본, 중국, 독일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해 2019년 3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2022년 연간 수출액 403억원을 달성했다.



김동섭 효동기계공업 대표 김재중 라피치 대표

라피치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음성인식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김재중 대표는 20년 이상 음성인식 분야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AI 가상 개인비서 서비스와 음성인증 AI 서비스를 주요 통신사·금융권 콜센터에 공급하고 있다. 라피치는 2021년 매출액 68억원에서 2023년 170억원으로 크게 성장했으며 KT, SKT, AVAYA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한 기술 교류와 고도화를 기반으로 해외 AI 시장의 진출도 준비 중에 있다.

/김승호 기자



벤처기업협, 日 신경제연맹과 맞손 벤처협회는 일본 신경제연맹과 국내 벤처기업의 일본 진출 지원과 현지 기업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측은 국내 벤처기업의 원활한 일본 진출을 위한 정보교환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화 도모 등을 추진한다. (왼쪽 4번째부터)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총장과 일본 신경제연맹 호리 케이이치(Keiichi Hori) 사무국 차장 등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 KCC, 산업 부산물로 플라스틱 신소재 개발

18개월 연구, 100% 재활용 원료 활용 깨끗한 나라 물티슈 뚜껑 제조·판매

KCC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조 부산물을 가공해 순환자원 신소재를 개발하는 등 ESG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KCC는 유리장섬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정제해 만든 분말(EcoSnow)과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즉석밥 용기를 활용한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기·전자,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사용하는 유리장섬유를 생산하는 KCC 세종공장 개발팀은 상품 제조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던 가운데 18개월의 연구 기간 끝에 부산물 정제를 통해 에코노우(EcoSnow)라고 이름 붙인 가공분말과 즉석밥 용기(PP)를 배합했을 때 결정 속도가 빨라져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성형 후 일정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신소재를 개발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한 신소재(ECOmpound)는 100% 재활용 원료를 활용해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이번 신소재는 먼저 깨끗한 나라 생분해 물티슈 뚜껑(캡)으로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플라스틱 상품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물티슈 뚜껑은 재활용 플라스틱과 새 플라스틱을 절반씩 섞어 제조했으나, 이번 KCC의 신소재를 통해 100% 재활용 원료로 제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규 플라스틱 저감 ▲즉석밥 용기 재활용을 통한 생활 폐기물 감소 ▲제품 생산 부산물 저감 및 폐기 비용 축소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신소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합성수지 재질(PP) 성적서를 발급받으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향후 재활용까지 가능하게 됐다.

KCC 세종공장 한상훈 개발팀장은 "18개월이라는 개발 기간을 통해 100%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신소재를 개발하고 특히 출원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에 개발한 신소재는 물티슈캡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의 대체제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세종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코웨이, 비렉스 안마베드 홈 체험 서비스

브랜드 론칭... 10일 체험비 10만원

코웨이가 슬림 및 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 안마베드·척추베드 론칭을 기념해 홈 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

19일 코웨이에 따르면 홈 체험 서비스는 비렉스 안마베드와 척추베드를 구매 부담없이 최소 비용으로 10일간 집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체험비는 10만원이며, 체험 전용 제품을 제공한다.

코웨이는 지난 달까지 진행된 홈 체험 이벤트가 큰 반응을 얻자 더 많은 고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시 서비스로 전환했다.

비렉스 안마베드·척추베드는 침상형 안마기기로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척추 라인을 밀착 케어하는 6가지 기본 코스를 포함해 총 최대 30가지 안마 프로그램이 탑재됐다.

체험을 원하는 신규 고객은 코웨이

닷컴, 콜센터, 코웨이 매장, 코웨이 판매인(코디, 홈케어닥터 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안마 제품은 직접 경험해보고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집에서 마음껏 사용해보고 부담없이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홈 체험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이번 체험 기회를 통해 비렉스 안마베드와 척추베드만의 혁신적인 지압·주무름·두드림 기능과 맞춤형 마사지 시스템으로 집에서 완벽한 휴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침대는 왜 과학일까?' 후속영상 공개

에이스침대, 4가지 시험 소개 배우 박보검 출연·내레이션

에이스침대가 신규 디지털 콘텐츠 '침대는 왜 과학일까?' 후속 영상 4편을 공개했다.

19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실제 매트리스 성능 테스트 현장을 사실적으로 담은 '침대는 왜 과학일까?'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달 15일 1차 영상 4편 선포 공개 후 반응이 좋자 한 달여 만에 후속 영상을 선보였다.

이번 2차 영상은 에너지소비량 테스트, 바디라인 유지 테스트, 매트리스 쏠림 테스트, 가장자리 지지력 테스트 등 총 4가지 시험을 소개한다.

탄력성, 사용감, 내구성, 가용면적 등 에이스침대 매트리스만의 차별화된 성능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1차 영상과 마찬가지로 제품별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진행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연구원으로 변신한 배우 박보검의 모습과 내레이션도 만날 수 있다.

에너지소비량 테스트는 피시험자의 목과 허리 4곳에 근전도 측정기를 부착한 후 전기 신호를 통해 스프링 종류에 따라 수면 중 뒤척일 때 발생하는 근육 사용량을 체크했다.

그 결과 뒤척일 때 근육 사용량이 많은 메모리폼과 독립형 스프링에 비해 하이브리드 Z스프링은 뛰어난 탄성과 반발력으로 수면 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디라인 유지 테스트는 피시험자의 인체 곡선이 침대에 누웠을 때 서 있을 때처럼 잘 유지되는지 알아보는 시험이다.

하중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 바디라인이 유지되지 않는 메모리폼이나 독립형 스프링과 달리, 하이브리드 Z스프링은 인체곡선에 따라 위에서 맞춰주고 아래에서는 받쳐줘 몸에 부착한 광섬유 케이블이 거의 일직선으로 유지된다는데 에이스침대측의 설명이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